

자성·쇄신 결사에 신도도 한마음

포교원, 신도 대중공사 봉행... 생활서 5대 결사 실천하는 대중실천지침 눈길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신도들의 결사 참여를 독려키 위한 행사가 출가열반절을 맞아 열린다. 출가열반절은 불교의 4대 명절(출가제일, 열반제일, 부처님오신날, 성도제일) 가운데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있는 기간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부처님 출가제일인 3월 12일부터 열반제일인 19일까지를 출가·열반제일 봉행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신도 대중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중앙신도회 소속 신도조직 및 포교단체들이 참여한다. 출가열반절 동안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 108배 정진이, 11~12시에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주제로 매일 법문과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입제일인 1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화향일인 19일에

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법문한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13일)·총주 석종사 선원장 해국 스님(14일)·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15일)·김제일 사찰생태연구소장(16일)·서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17일)·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18일)이 법문 및 강연을 한다.

조계사 앞마당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5대 결사와 관련한 △기금모금 △사진전 △바자회 △무료검진 △생명나눔 행사 등 문

화·나눔 행사도 열린다.

특히 신도 대중공사 기간에는 5대 결사에 관한 대중실천지침이 선언된다. 대중실천지침에는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원리와 구체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도 대중공사는 조계사뿐만 아니라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도 일제히 봉행된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와 말사에 출가열반제일 정진주간 개최에 따른 지침을

발송했다. 포교원은 행사 홍보포스터와 신도들을 위한 휴대용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했다.

포교원은 "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결사에 대해 대중공사를 통한 신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이번 출가열반절 봉행 사업을 계기로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거쳐 5대 결사에 대한 신도대중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5대결사 점검④ 나눔결사 사회적 나눔 앞서 내부 진단 시급

말사 총무원 복지 강화 시급 출가자 양극화 해소 선행돼야

조계종 총무원의 나눔 결사는 ▷결식 아동 지원 ▷이웃과 사회를 위한 108배 ▷나눔과 무소유 캠페인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아름다운동행 등 종단 내 복지 기관 및 단체들이 꾸준히 실천해 온 내용들이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원의 나눔 결사가 대사회적인 활동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 내부의 나눔과 복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사찰 총무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사 총무원들의 경우 아직까지 4대 보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총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복지문제이고, 나눔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불교적 나눔 전체를 고민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나눔

결사'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병헌 서울대학교 불교학과 명예교수는 "나눔은 불교의 근본정신이다. 교리적 근거와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철학적인 개념이 확고해야 개별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나눔 결사에 앞서 출가자의 복지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복지증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교단 민주화의 실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나눔 결사는 현재 총무원과 아름다운동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비움으로 행복찾기' 등을 나눔 결사에 초점을 맞춰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는 나눔 결사의 실현과 저소득 및 실직자정,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10억 기금 조성, 1배에 100원을 모금하는 108배 모금법회 등을 추진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은 "지역 교구본사가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도들의 보시문화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회복지 영역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원 정비해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

수덕사 신임 주지 지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에 수덕사 부주지를 지낸 지운(只耘) 스님이 지명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2월 28일 인회를 소집해 25명의 임회원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운 스님을 차기 주지로 선출했다.

지운 스님은 수덕사 유나 우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9년 4월 수덕사에서 해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10월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덕숭총림 선원도감, 수덕사 승가대학 운영위원, 조계종 11~12대 종회의원, 보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운 스님은 3월 15일 용산 스님 입기 만료 후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3월 16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지운 스님은 "부족한 저에게 소

임을 주신 것은 문중 화합과 행정에 중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위로는 방장 스님을 위시한 사중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들과 소통해 수덕사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그동안 해오던 불사를 잘 이어받아 총림으로서의 자격과 품위를 지키는 한편 내적 역량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강원 중심의 인연 확장과 환경 개선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위원회 비전문가들? 조계종, 문화재청에 총책임자 2인 추천

조계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추천한 4인 가운데 비전문가 2인을 포함시켜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4월 25일 임기만료 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후보자로 문화재 총책임자 문화부장 후보 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 흥신

스님 외에 문화재 분야와 무관한 정책특별보좌관 2인을 추천했다.

문화재 분야 비전문가인 총책임 특별보좌관이 문화재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계종이 문화재 관련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동섭 기자

김종빈 前 검찰총장 등 위촉

조계종 불자네트워크 시작

조계종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불자 네트워크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3월 2일 조계종 법률 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법률 자문단은 김동건(前 서울 고법원장, 영남학원

이사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구상진(前 서울지검 검사, 변호사,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빈(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고려대 법대 교수), 임재선(前 검찰총장, 변호사), 손수일(법무법인 로콜 대표 변호사) 등 5명이다. 간사는 김봉석 변호사가 맡았다. 노덕현 기자



“출가 제한 철폐·고령자 수용해야”

종회의원 주경 스님, 출가정책세미나서 주장

출가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납 50이 넘는 고령자와 청소년의 출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주경 스님은 2월 24일 조계종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 위원회가 개최한 출가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가 연령·학력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행 50세로 규정하고 있는 출가제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고



령자출가 교육과 부적응 문제는 종단 내부의 조직과 규율을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청소년과 고령자 출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출가자 제도'와 만50세 이상의 재가자를 위한 '인행(因行)출가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출가제도의 경우 중·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출가하고 행자등록을 마친 뒤 교육법에 의한 별도의 행자교육을 받는 것이다. 구족계 수지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받는다.

인행출가자 제도는 갈마위원회를 거쳐 행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2년간의 행자교육과 소속교구에서 4년간의 교육 후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다. 다만 인행출가자는 공직 진출과 선거·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종사 이상의 법계를 품수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령자 출가에 찬반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박규원 만평

저는 절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중립을.....

종교계

MB 조찬 기도회

(재)한국불교법륜종 2011년도 행자모집 및 교육 공고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에서 아래와 같이 2011년도 행자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개요

- 기 간 : 불기 2555년 3월 26일(입교식) ~ 4월 15일(수계식) : 3주간
- 장 소 : 법우선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4-5번지)
- 대 상
 - (1) 전국 각 사암에서 기초 행자교육 과정을 이수 한 자
 - (2) 2011년 이전 입산 행자로서 2011년 2월까지 등록을 필한 자
- 서류 접수
 - (1) 접 수 처 : 총 무 원
 - (2) 접수기간 : 2011년 3월 7일 ~ 24일
 - (3) 제출서류 : 이력서, 주지스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6매

- 입교생 지참물 : 주민등록증, 세면도구, 필기도구, 식발용 면도기, 의제(적삼, 동방, 흥가사, 화색장삼) 흰고무신, 운동화
- 집결 / 교육 장소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4-5 번지 (법우선사 ☎ 063-561-5551)
- 교 육 비 : 50만원 / 1인당 (* 행자교육 교재비 및 행자복, 바루 등 각종 비용 포함)

입교생 집결 : 2011년 3월 25일(금) 17:00 까지 도착 (법우선사)

(재)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석 백 관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 / ☎ 041)734-5371, FAX 041)734-5373